

01. 예배

주일찬양예배 말씀은 돈 스누키안 목사(Rev. Dr. Don Sunukjian, 탈봇신학교 명예교수)께서 전해 주십니다.

02. 추수감사절

다음 주 주일(10.30)은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어'(대상 29:13)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가 되도록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추수감사주일 당일 1부 예배 후부터 국밥 나눔 한마당이 있습니다.
- ②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헌물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국밥 나눔 행사용 헌물(소, 무, 양념류 등)
  - 특별 헌물(과일, 채소, 대형 호박 등)
  - 야외 헌물대에도 자유롭게 헌물하실 수 있습니다[헌물기간: 10.25(화)-30(주일)].
  -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704-090027(예금주: 대한예장명성교회)
    - 하나은행: 561-910010-79504(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명성)
- ③ 민속농기구전시회가 예루살렘성전 지하 1층 오직주님의 길에서 진행됩니다 (총 302점 전시).
- ④ 추수감사주일 당일에는 베들레헬성전 앞마당과 공원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까운 지역의 성도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사랑의 나눔 상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명성교회 성도들과 사마리아퍼스가 함께 5,000개의 사랑의 나눔 상자를 우크라이나 난민어린이와 필리핀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제배송료 및 제자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은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 배포일자: 10.23(오늘)-30(주일) · 수거일자: 11.6(주일), 13(주일)
· 배포 및 수거장소: 베들레헬성전 앞마당

04. 유아세례식

유아세례식이 10.23(오늘) 주일낮예배 4부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성례식

2022년 하반기 세례·입교예식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새가족교육 수료자는 교육 면제).

접 수	10.23(오늘)~11.9(수)까지	사무처
교 육	11.12(토) 오전 10-12시, 오후 7-9시	호산나실
	11.13(주일) 오후 1-3시	호산나실
문 답	11.19(토) 오전 10-12시, 오후 3-5시, 7-9시	나사렛실
세례·입교식	11.25(금) 오후 7시	예루살렘성전

06. 금요구역장·권찰 교육

금요구역장·권찰 교육이 개강합니다. 금요구역장·권찰 교육은 10.28(금) 오전 10시에 개강하며, 구역장 성경공부는 다음 주 수요기도회(11.2) 후에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권찰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교역자 동행

본 교회 김준곤 목사께서 고든콘웰신학교 부임(파트너십 프로그램 디렉터)을 위해 사임하였습니다.

08. 제8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제8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가 10.25(화) 오전 9시 광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는 김동욱, 박고운, 이경환, 이재민, 이주현 전도사의 목사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초점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회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다초점 렌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초점이 맞아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음의 초점을 우리는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발견의 은혜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왕인 다윗이 나단을 덮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할 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회복을 주십니다.

죄와 멀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미 충분히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욕심으로 밋세바를 탐냈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유혹이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발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안주훈 최운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이승갑

목사

김남수 김다림 김동민 김동진 김득열 김병규 김봉기 김석호 김진우 김에셀 김요한 김우중 김윤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곤 김준환 김준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요한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송한솔 신경민 신동신 신승현 여주형 우종협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목 임지환 장준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해림 최대열 최에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경환 김동욱 김민음 박경애 박고운 박근우 박보하 박우진 신재희 오대용 이경환 이상인 이 성 이윤관 이은세 이재민 이주현 임기도 정구현 편경호

교육전도사

김석현 김승택 김용문 김웅기 김윤영 김준영 문태은 박경민 박재현 박조롱 손찬영 송영호 이성현 이준민 이준식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박종근(중국)

오직주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개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